

# 중국 남조시기의 “백제왕” 왕호 제수에 관한 연구\*

張耀元\*\*

- 
- I. 머리말
  - II. 남조시기의 관작제수 제도 및 사료에 기록된 “백제왕” 왕호의 제수
  - III. 孝武帝 大明 원년 “百濟王” 왕호 제수문제
  - IV. 陳 文帝 天嘉 3년 “百濟王” 왕호 제수문제
  - V. 맺음말
- 

## 【국문초록】

東晉 安帝 義熙 12년(416) 중원왕조가 최초로 “百濟王”이라는 왕호를 백제 국왕인 餘映에게 제수한 후 남조, 수나라 당나라를 걸쳐 백제가 멸망될 때까지 이어졌다. 남조시기의 관작 제수에는 일련의 엄격한 절차가 있었다. 사료 기록에 따르면 남조는 아홉 차례 백제왕을 책봉하였으나 “백제왕” 왕호 제수는 6번에 불과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남조시기의 책봉제도의 절차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런 규범화된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왜 劉宋 孝武

---

\* 이 논문은 2019년 중국 국가사회과학연구기금항목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19XSS007).

\*\* 중국 延邊大學 인문사회과학대학 세계사(한국사) 전공 박사과정

帝 大明 원년(457)과 陳文帝 天嘉 3년(562)에 백제국왕에게 “백제왕” 왕호를 제수하지 않은 이유를 고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457년은 유송이 고구려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여 백제왕에게 “백제왕” 왕호를 제수하지 않았고 562년은 진이 국내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었으므로 제수할 여력이 미비하여 “백제왕” 왕호를 제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백제왕” 왕호 제수여부를 통해 남조시기 대외 관계에서의 백제의 지위 그리고 변화상을 논술하였다.

주제어: 백제, 남조, “백제왕”, 왕호

## I. 머리말

동진은 안제 의희 12년(416)에 중원왕조 최초로 “백제왕”이라는 왕호를 백제 腆支王 여영(재위 : 405—420년)에게 제수하였다.<sup>1)</sup> 원희 2년(420) 劉裕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유송을 세웠다. 유유는 즉위 초에 동진 말기 실행한 “백제왕” 왕호 제수를 이어서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군호도 “鎮東將軍”으로 승격시킴으로서 남조의 “백제왕” 왕호 제수의 서막을 열었다.

중국 학계의 “백제왕” 왕호 제수 문제에 관한 연구 성과는 그리 많지 않고 주로 작호 변천사 정리에 집중되어 있다. 고명쓰(高明士)는 저서 『천하질서와 문화권 탐색—동아시아 고대의 정치와 교육을 중심

1) “義熙十二年, 以百濟王餘暉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 『宋書』 卷97, 列傳第57, 夷蠻, 百濟傳. 이 전인 동진 효무제 태원 11년(386)에 동진은 백제 세자 여휘(餘暉)에게 ‘백제왕’ 왕호를 제수하였다. “夏四月, 以百濟王世子餘暉爲使持節, 都督, 鎮東將軍, 百濟王.” 『晉書』 卷9, 帝紀第9, 孝武帝. 그러나 당시에 재위한 백제왕이 진사왕이었으므로 엄격하게 따진다면 백제세자는 백제왕이라는 신분으로 제수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중국 왕조의 ‘백제왕’ 왕호 제후의 첫 시작으로 보지 않고 있다.

으로』에서 표 형식으로 남조의 백제에 대한 책봉의 역사를 정리하였고 이런 책봉관계가 남조가 그 시기의 천하질서를 구축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지적하였다.<sup>2)</sup> 양권(楊軍)과 왕치유빈(王秋斌)은 저서 『중국과 한반도관계론』에서 동진에서부터 당나라 때까지의 백제왕에게 제수된 왕호와 장군호 등의 변화를 정리하였고 중국 역대 왕조의 한반도 국왕들에게 내린 封號에는 羈縻體制라는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sup>3)</sup> 평리권은 『百濟集史』에서 중국 정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하여 양권이 위의 저서에서 언급된 백제왕의 왕호와 장군호 등을 더 세밀하게 정리하였다.<sup>4)</sup>

한국 학계의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는 비교적 많다. 그 중 일부는 남조의 백제 작호 책봉에 관한 정리로 예를 들어 임기환은 「남북조시기 한중 책봉·조공 관계의 성격—고구려·백제의 책봉·조공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sup>5)</sup>에서 남북조가 고구려와 백제에 제수한 관작을 표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백제와 남조의 조공, 책봉관계는 백제의 정치기능과 쌍방의 밀접한 관계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 신형식은 『백제의 대외관계』에서 중원왕조가 백제에 책봉한 작호를 간략하게 정리하였고 이것은 중원왕조의 백제에 대한 예우의 표현이라고 지적하였다.<sup>6)</sup> 정재윤은 「5—6세기 백제의 南朝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에서 백제와 劉宋, 南齊, 蕭梁 그리고 북위의 관계를 시기별로 분석하고 연구하면서 유송, 남제와 소량이 백제에 제수한 관작들을 정리하였다. 남조가 제수한 ‘백제왕’ 왕호에 관한 연구에서 백길남은 「4세기 말~5세기 초엽 “백제왕” 호의 책봉 배경과 ‘都督百濟諸軍事’ 호의 의의」에서 효무제 太元, 11년(386)에 동진이 백제에게 두 번 제수한 ‘백제왕’ 작호와 ‘도독백제제군사’에 대해 검토를 하였고 이것이 중국이

2) 가오밍쓰(高明士), 2008, 113쪽, 122쪽.

3) 양권, 왕치유빈, 2006, 134~137쪽.

4) 풍립군(馮立君), 2019, 60쪽, 61쪽.

5) 임기환, 2003, 41~42쪽.

6) 신형식, 2005, 110쪽.

백제에게 관작을 제수를 한 시초라고 주장하였다.<sup>7)</sup> 이기동은 「중국 사서에 보이는 백제왕 모도에 대하여」라는 논문에서 중국정사, 그리고 『삼국사기』의 사료들에 근거하여 남제 건원(建元) 2년(480) 남조의 “백제왕” 책봉의 대상자와 사실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sup>8)</sup> 박찬우는 박사 학위논문 『백제 외교문서와 남북조 외교』 제5장에서 동성왕시기 남제에 올린 表文을 연구하였고 문서에서 언급한 “백제왕”작호 제수사실에 대해 연구하였다.<sup>9)</sup> 이 외에 백제가 남조에게 대신 제수를 요청한 사실을 연구한 연구 성과도 있는데 예를 들어 양기석의 「5세기 백제의 ‘王’·‘侯’·‘太守’제에 대하여」,<sup>10)</sup> 일본의 坂元義種の 「5세기의 ‘백제대왕’과 그의 왕·후」,<sup>11)</sup> 井上直樹의 「백제의 王號·侯號·太守號와 將軍號 — 5세기 후반 백제의 지배질서와 동아시아」<sup>12)</sup> 등이 있다.

위의 이런 연구 성과들은 “백제왕” 왕호에 관한 연구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지만 연구들이 대부분 남조가 백제에게 제수한 작호에 집중되어 있거나 백제와 남조의 관계를 연구할 때 “백제왕” 왕호를 언급하였다. “백제왕” 왕호 제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미비하고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연구도 요구된다. 이에 본문은 남조시기의 관작제도에 대한 연구에 착안하여 “백제왕” 왕호 제수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특히 왜 유송 효무제 대명 원년(457)과 진문제 천가 3년(562)에만 백제왕에게 “백제왕” 왕호를 제수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7) 백길남, 2020, 275쪽.

8) 이기동, 1974, 34쪽.

9) 박찬우, 2022, 140쪽.

10) 梁起錫, 1984, 50쪽.

11) 坂元義種, 1968, 54쪽.

12) 井上直樹 著, 임동민 역, 2018, 292쪽.

## Ⅱ. 남조시기의 관작제수 제도 및 사료에 기록된 “백제왕” 왕호의 제수

중국 고대사회에서 封爵제도는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周禮』에서는 주나라가 五等爵位制를 실행하면서 옥으로 여섯 개의 징표를 만들어 등급을 표시하였다고 한다.<sup>13)</sup> 비록 이 문제에 대해 학계에는 아직 논쟁이 있어 정론이 없기는 하나 『주례』에 기록된 오등작위제가 위진 남북조시기의 오등작위제의 참조물이 되었다고는 볼 수 있다.<sup>14)</sup> 『通典』에는 위진 남북조시기의 봉작제도가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王, 公, 侯, 伯, 男”이 위진 남북조시기의 작호를 구성한 중요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sup>15)</sup>

위진 남북조 시기의 봉작제도는 위로는 진나라와 한나라의 봉작제도를 계승하였고 아래로는 수나라와 당나라의 봉작제도의 시초가 되었으므로 봉작제도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의 중간단계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隋書』에는 남조의 양나라와 陳나라의 제수 과정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sup>17)</sup> 이 기록에 근거해서 본다면 남조시기의 관작제수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별하게 조서를 내려 관작을 제수해야 한다는 사람이 생기면 [有特發詔授官者] → 中書省 詔告局에 알려 임명에 관한 초안을 만들어 황제에게 보고하도록 하고[草詔奏聞] → 황제가 칙서를 내려 허락하면

13) 양텐위(楊天宇) 역주, 2016, 373쪽.

14) 楊光輝, 1999, 28쪽.

15) “晉亦有王·公·侯·伯·子·男,又有開國郡公·縣公·郡侯·縣侯·伯·子·男及鄉亭, 關內等侯, 凡十五等…宋皆因晉制, 唯大小國皆三軍…齊因之. 梁因前代…陳有郡王·嗣王·藩王·開國郡公·開國縣公·侯·伯·子·男…凡十二等.” 『通典』 권19, 職官1, 封爵

16) 양광휘이, 1999, 2쪽.

17) “陳依梁制…其有特發詔授官者, 即宣付詔詰局, 作詔草章奏聞. 勅可, 黃紙寫出門下. 門下答詔, 請付外施行. 又畫可, 付選司行召. 得詔官者, 不必皆須待召. 但聞詔出, 明日, 即與其親入謝後, 詣尚書, 上省拜受. 若拜王公則臨軒.” 『수서』 卷26, 志第21, 百官上

[敕可] → 門下省에서 이에 부응하는 조서를 만들어 조서를 내릴 것을 황제에게 청하며[答詔請付外]→ 황제가 다시 허락하고[畫可]→ 尚書省 選司에 맡겨 조서를 선포토록 하며 [選司行詔] → 관작을 책봉 받은 자가 절을 하며 제수받는 이런 수순이었다.<sup>18)</sup>

이런 일련의 집행절차는 남조시기의 관작 제수가 엄격하면서도 규정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해야 했고, 절차마다 황제에게 보고해야 했으며 또 반드시 황제의 승낙을 받아야 했다. 만약 관원 개개인의 실수 때문에 제수에 착오가 생겼다면 해당 관원은 상응한 책임을 져야 했다. 『宋書』에는 永初 2년(421) 유송의 장군 謝晦가 책봉 문서를 받들어 鎮西司馬 南郡太守인 王華에게 봉작을 해야 했지만 실수로 문서를 北海太守인 王球에게 잘못 전달하여 그가 맡고 있던 시중의 직책을 면직했다는 기록이 있다.<sup>19)</sup> 이 외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黃門侍郎 王韶<sup>20)</sup>도 면직되었다.

남조시기의 관작 제수가 비교적 세분화되어 있고 또 규범화되어 황제의 지시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정된 순서대로 전달 기구와 전달 관리가 집행해야 했다는 것을 위의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백제왕”이라는 왕호도 남조가 마음대로 제수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제수에 관한 조서 그리고 순서도 지정된 순서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백제는 남조의 중요한 교류대상국으로 백제왕은 관작을 수차례 제수 받았다. 중국 정사의 관련 기록들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18) 陳仲安, 王素, 2018, 57~58쪽; 周文俊, 2018, 123쪽.

19) “二年, 坐行璽封鎮西司馬南郡太守王華, 而誤封北海太守球, 板免晦侍中.”  
『南史』卷19, 列傳第9, 謝晦傳

20) “恭帝即位, 遷黃門侍郎, 領著作, 西省如故. 凡諸詔黃皆其辭也. 武帝受命, 加驍騎將軍, 黃門如故. 西省職解, 複掌宋書. 坐璽封謬誤, 免黃門, 事在謝晦傳.”  
『南史』卷24, 列傳第14, 王韶之傳

남조가 백제왕에게 제수한 왕호와 장군호

南朝年號紀年	百濟王紀年	西紀	冊封者	受封者	王號	將軍號
劉宋武帝 永初元年	腆支王16	420年	劉宋	腆支王	百濟王	鎮東大將軍 <sup>21)</sup>
劉宋文帝 元嘉七年	毗有王4年	430年	劉宋	毗有王	百濟王	鎮東大將軍 <sup>22)</sup>
劉宋孝武帝 大明元年	蓋鹵王3年	457年	劉宋	蓋鹵王	없음	鎮東大將軍 <sup>23)</sup>
南齊高帝 建元2年	東城王2年	480年	南齊	牟都	?	鎮東大將軍 <sup>24)</sup>
南齊武帝 永明8年	東城王12年	490年	南齊	東城王	百濟王	鎮東大將軍 <sup>25)</sup>
南梁武帝 天監元年	武寧王2年	502년	蕭梁	東城王	百濟王	征東大將軍 <sup>26)</sup>
南梁武帝 普通2年	武寧王21年	521年	蕭梁	武寧王	百濟王	寧東大將軍 <sup>27)</sup>
南梁武帝 普通5年	聖王2年	524年	蕭梁	聖王	百濟王	綬東將軍 <sup>28)</sup>
南陳文帝 天嘉3年	威德王8年	562年	陳	聖王	없음	撫東大將軍 <sup>29)</sup>

- 21) “高祖踐阼,詔曰:‘使持節,都督營州諸軍事·征東將軍·高句驪王·樂浪公璉,使持節·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映,並執義海外,遠修貢職.惟新告始,宜荷國休,璉可征東大將軍,映可鎮東大將軍.持節·都督·王·公如故.’”(『宋書』卷97,列傳第57,夷蠻,高句驪傳)
- 22) “七年,百濟王余毗複修貢職,以映爵號授之.”(『宋書』卷97,列傳第57,夷蠻,百濟傳)
- 23) “甲辰,以百濟王余慶爲鎮東大將軍.”(『宋書』卷6,本紀第6,孝武帝本紀,大明元年條)
- 24) “詔曰:‘寶命惟新,澤波絕域.牟都世藩東表,守職退外,可即授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冊府元龜』卷968,外臣部,冊封一)
- 25) “詔可,並賜將軍號.除太守,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使兼竭者僕射孫副策命大襲亡祖父牟都爲百濟王.曰:‘於戲.惟爾世襲忠勤·制詔行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牟大今以大襲祖父牟都爲百濟王,即位章綬等玉銅虎符四.王其拜受,不亦休乎!’”(『南齊書』卷58,列傳39,東南夷)
- 26) “鎮東大將軍百濟王餘大進號征東大將軍.”(『梁書』卷第2,本紀第2,武帝本紀中,天監元年條)
- 27) “普通二年,王餘隆始複遣使奉表,稱‘累破句驪,今始與通好.’而百濟更爲強國.其年,高祖詔曰:‘行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餘隆,守藩海外,遠修貢職,乃誠款到,朕有嘉焉.宜率舊章,授茲榮命.可使持節·都督百濟諸軍

위의 표를 통해 남조의 유송, 남제, 소량 그리고 진나라 때에 도합 9차례 백제왕을 책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9차례 모두 장군호를 제수하였다. 유송과 남제 때의 장군호는 모두 “鎮東大將軍”이었고 소량시기에는 “征東大將軍” “寧東大將軍”과 “綏東大將軍”이었으며 진나라 때의 장군호는 “撫東大將軍”으로 급이 가장 높다. 장군호 호칭에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급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장군호들은 백제가 어느 정도 외부정세를 안정시켜 주기를 바라는 희망을 반영해 주고 있는데 남조의 백제에 대한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바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장군호와 다르게 “백제왕” 왕호를 남조는 백제왕에게 6차례만 제수하였다. 남조는 관작제수 특히 왕호 제수를 통해 존송받는 황족만의 세력을 구축하여 황권의 지고무상을 반영하는 한편, 이것을 통해 존귀비천이라는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sup>30)</sup> “백제왕” 왕호는 백제왕에게 제수된 작호 중, 최고의 작호로 백제왕의 권위를 확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백제왕” 왕호는 백제왕의 “왕”으로서의 신분을 인정해 주고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남조의 동아시아에서의 정책의 반영으로 백제왕이 동아시아에서의 사회지위를 구축하고 백제국내에서 “백제왕”을 중심으로 하는 관품 제도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비교적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sup>31)</sup>

중국 정사 외에 『삼국사기』, 『冊府元龜』에서도 “백제왕” 왕호제수 관련 상황과 변화들을 기록하였다. 『삼국사기』는 남조의 세 번의 백제제수 사실, 즉 유송 文帝 元嘉 7년(430),<sup>32)</sup> 梁武帝 普通 2년(521)<sup>33)</sup>,

事·寧東大將軍·百濟王。”(『梁書』卷第54, 列傳第48, 諸夷, 百濟傳)

28) “五年, 隆死, 詔復以其子明爲持節·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梁書』卷第54, 列傳第48, 諸夷, 百濟傳)

29) “閏二月己酉, 以百濟王餘明爲撫東大將軍, 高句驪王高湯爲寧東將軍。”(『陳書』卷3, 本紀3, 世祖本紀, 天嘉三年條)

30) 양광휘이, 1999, 3쪽.

31) 井上直樹著, 임동민譯, 2018, 第319頁.

32) “四年, 夏四月, 宋文皇帝以王復修職貢, 降使冊授先王映爵號。 “[腆支王十二年, 東晉冊命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將軍·百濟王。”(『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3쪽, 毗有王4年)

그리고 양무제 보통5년(524)<sup>34)</sup>의 관련 사실을 기록하였다.<sup>35)</sup>

『책부원귀』에서는

“진나라 의희 12년에 그 왕 여영을 백제왕으로 책봉하였고 송 원가 7년에 그 왕 毘가 다시 직공을 하여 여영의 작호를 제수 받았다. 비가 죽은 후 그의 아들 慶이 대신 해서 세워졌고 경이 죽자 그의 아들 모도가 세워졌으며 모도가 죽자 그의 아들 牟대가 세워졌다. 양나라 보통 2년 그 왕 隆이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고 5년 용이 죽자 그의 아들 明이 그 왕호를 인습하였고 北齊 武平 원년에 그 왕 餘昌을 백제왕으로 삼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6)</sup>

위의 기록은 중국정사의 기록들을 일부 증명해 주고 있는데 즉 백제왕은 진 의희 12년(416), 송 원가 7년(430), 양 보통 2년(521), 양 보통 5년(524), 북제 무평 원년(570)에 확실하게 “백제왕” 왕호를 제수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분명하지 않고 누락된 부분도 있는데 개로왕, 모도, 모태시기에는 왕으로 세워졌다는 기록만 있고 작호가 부여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며 유송 무제 영초 원년(420), 남제 무제 영명 8년(490), 남량 무제 천감 원년(502)의 관련 기록들이 누락되었

33) 武寧王21年十二月，高祖詔冊王曰：“行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百濟王餘隆，守藩海外，遠修貢職，乃誠款到，朕有嘉焉。宜率舊章，授茲榮命，可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34) 聖王2年。 “二年，梁高祖詔冊王爲持節都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三國史記』卷26, 百濟本紀4)

35) 『삼국사기』의 관련 기록이 중국정사와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상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번외에 『삼국사기』에는 나머지 6번의 “백제왕” 제수에 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36) “百濟晉義熙十二年封其王餘映爲百濟王，宋元嘉七年其王餘毘復修職貢以映爵號授之。毘死子慶代立，慶死子牟都立，牟都死子牟大立，梁普通二年其王扶餘隆遣使朝貢，五年隆死子明襲其王號，北齊武平元年以其王餘昌爲百濟王。”(『冊府元龜』卷966, 外臣部, 繼襲1)

다. 이는 『책부원귀』가 편찬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한 단락만 인용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요약해서 사용하여왔기 때문이다.<sup>37)</sup>

남조가 백제에 제수한 “백제왕” 왕호의 역사를 정리해본다면 남제 고제 건원 2년(480)의 백제왕 왕호 제수에 의문이 제기 된다. 『남사』와 『남제서』의 해당 연도의 “백제왕” 왕호제수에 관한 기록에는 서로 어긋난 기록이 보인다. 『남사』는 건원 2년 남조가 백제에게 백제왕에게 “진동대장군”만 제수하였다고 한다.<sup>38)</sup> 『남제서』는 건원 2년 남조가 동성왕에게 모도의 “백제왕”작호를 인습토록 했다고 한다.<sup>39)</sup> 남조의 모도에 대한 책봉이 건원 2년에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 추측해 볼 때, 건원 2년 남조가 “백제왕”왕호를 모도에게 제수해야 동성왕이 이 왕호를 인습할 수 있었으므로 건원 2년 남조가 “백제왕” 작호를 모도에게 제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증거로 사용할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의 표 중, 효무제 대명 원년과 陳 문제 천가 3년에 백제왕에게 “백제왕” 왕호를 제수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대명 원년의 관련 사실은 『宋書』와 『南史』에 보이는데 『宋書』에서는 “甲辰, 以百濟王余慶爲鎮東大將軍.”으로 기록되어 있고 『南史』에서는 “冬十月甲辰, 以百濟王余慶爲鎮東大將軍.”으로 기록되어 있다. 천가 3년의 관련 사실은 『진서(陳書)』와 『남사』에 보이는데 『진서』에서는 “閏二月己酉, 以百濟王餘明爲撫東大將軍, 高句驪王高湯爲寧東將軍.”으로 기록되어 있고 『남사』에서는 “閏月己酉, 以百濟王餘明爲撫東大將軍.”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사료들의 서술형식을 검토해 본다면, 여기에서 나타난 “백제왕”은 단지 백제 국왕을 지칭하는 것이지 백제

37) 장원휘이(張舜徽) 편저, 1984, 415쪽.

38) “三月, 百濟國遣使朝貢, 以其王牟都爲鎮東大將軍.”(『南史』 卷4 齊本紀4, 建元二年.)

39) “詔可, 并賜軍号, 除太守. 为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鎮東大將軍. 使兼竭者僕射孫副策命大袭亡祖父牟都为百济王.”(『南齊書』 卷58, 列傳39, 東南夷.)

왕에게 내린 “백제왕”이라는 왕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다른 여섯 번의 기록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중국 정사에서는 “백제왕” 왕호를 제수할 때, 분명하게 전왕의 왕호를 인습하였다고 밝히거나 왕호를 제수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420년 “持節，都督，王，公如故”，430년 “以映爵號授之”，490년 “大襲亡祖父牟都爲百濟王”이 전자의 경우이고, 521년 “可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百濟王.” 524년 “詔複以其子明爲持節，督百濟諸軍事，綏東將軍，百濟王.”이 후자의 경우이다. 이 외에 유사한 사례를 동진 簡文帝 咸安 2년(372)의 기록 “六月，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도 보이는데 이 때 동진이 백제에게 책봉한 관호가 “樂浪太守”이고 이 곳에서 나타난 백제왕도 백제의 왕이라는 뜻이다.<sup>40)</sup>

남조와 백제 교류에서의 중요한 내용인 “백제왕” 왕호의 제수에는 규범화된 절차가 있어 기록이 누락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이는 듯이 유송 효무제 대명 원년(457)과 남진 문제 천가 3년(652)에는 백제왕에게 장군호만 제수되었고 “백제왕” 왕호가 제수되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 Ⅲ. 孝武帝 大明 원년 “百濟王” 왕호 제수문제

북위의 북방통일 후, 북위의 남진태세가 점점 거세져 남북조간에는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원가 27년(450) 송나라와 북위 간의 懸瓠에서 벌인 전쟁은 유송에게 큰 타격을 주어 남조는 전성기에서 쇠퇴기로 접어들기 시작했다.<sup>41)</sup> 원가 29년(452)에 국력이 회복되지 않은 유송은 다시 북벌을 시도하였으나 또 실패하고 말았다. 두 번의 북벌

40) 박기범, 2022, 175쪽.

41) 한귀관(韩国磐), 1983, 文帝元嘉28年條 “魏人凡破南兗·徐·兗·豫·青·冀六州，殺傷不可勝計，丁壯者即加斬截，嬰兒貫于槊上，盤舞以爲戲……自是邑裡蕭條，元嘉之政衰矣。”(『資治通鑑』卷126, 宋紀8)

은 유송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대외전쟁에서 거듭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부 상황도 여의치 않았는데 원가 30년(453) 태자 劉劭가 송 문제를 시해하고 황위에 올랐으나 내부의 권력 쟁탈전이 멈추지 않았다. 내, 외부 환경이 엄준하여 유송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력의 회복이었다.

북위를 견제하기 위해 남조는 북위와 馮弘 사건으로 갈등이 있는 고구려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송 문제 원가 13년(436), 북연의 마지막 왕인 풍홍은 북위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부하들을 거느리고 고구려로 향했다. 원가 15년(438) 풍홍은 다시 남조에 표를 올려 유송에 귀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유송은 바로 장군 王白駒, 趙次興에게 명을 내려 군사 7,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가서 풍홍을 맞이하라고 하였고 고구려에게는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고구려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고구려가 풍홍을 북위 아니면 남조 어느 쪽으로 보내든 모두 다른 한 쪽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고구려는 孫濼와 高仇등을 보내 습격하도록 하였으나 손수는 생포되었고 고수는 죽임을 당하였다. 이후 왕백구도 고구려에게 생포되었고 고구려는 왕백구가 “함부로 죽임”을 당했다며 그를 유송에 돌려보냈다.<sup>42)</sup> 고구려와 유송 모두 이 사건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장수왕은 왕백구 등을 처분할 때 왕백구등이 고구려 군을 습격한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맞지 않는 것인지를 따지지 않았고 왕백구가 함부로 고구려 장수를 죽인 일이 지나치다고만 질책하였고 “함부로 죽임[專殺]”이라는 죄명만으로 왕백구등을 남조에 돌려보냈다. 유송은 왕백구를 하옥시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풀어주었다. 유송과 고구려 모두 쌍방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상대방에게 여지를 남겨주었고 대책도 비교적 영활하였다.<sup>43)</sup> 풍홍의 사건으로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는 급속하게 냉담해졌다. 유송도 비록 이 사건에서 고구려와 마찰을 빚기는 하였으나 양국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서로 양보하

42) 李爽, 2018, 150쪽

43) 姜維公(姜維公), 2004, 22쪽.

면서 관계를 완화코자 하였다. 북위 화평 3년(462)이 되어서야 고구려가 다시 북위에 조공하였으나 북위 天安 원년(466) 화친사건으로 북위와 고구려의 관계가 다시 냉담해졌다. 5세기 중엽 전후, 고구려와 북위의 관계가 비교적 긴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풍홍 사건, 즉 5세기 중엽 전후 고구려와 남조의 관계는 긴밀해졌다. 436년에서 462년까지 고구려와 북위가 풍홍의 사건으로 냉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고구려는 유송에 11번(436년, 438년, 439년, 441년, 443년, 451년, 453년, 455년, 458년, 459년, 461년) 조공하였다. 거의 2년에서 3년간에 한 번씩 유송에 조공하는 편으로 잦았다. 방물을 조공한 외에 고구려는 유송에게 군사물자도 제공하였는데 유송 원가 16(439)년에는 말 800마리를 조공하였고<sup>44)</sup> 유송 대명 3년(459)에는 시기에 맞게 肅愼의 활을 조공하였다.<sup>45)</sup>

남조의 국력이 원가연간의 북벌 후에 이미 크게 쇠하였기에 고구려와의 교류에서 “修文德”으로 먼 곳에 있는 고구려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책봉, 답례품 하사 등에 힘을 아끼지 않았고 이것이 대고구려 정책의 중요한 내용으로 되었다.<sup>46)</sup> 효무제 대명 7년(463) 유송은 다시 장수왕의 장군호를 “車騎大將軍”으로 승격하였고 “高句麗王”으로 봉하였다.<sup>47)</sup> 유송이 고구려에게 책봉한 장군호, 그리고 관작을 보면, 정동대장군, 거기대장군, 散騎常侍, 都督營平二州諸軍事 등 인데 모두 군사적인 특징이 내포 되어 있어 쌍방의 관계에는 군사 협력적인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백제는 총 5회(440년, 443년, 450년, 457년, 458년) 조공

44) “文帝欲侵魏，詔璉送馬，獻八百匹。”(『南史』卷第79，列傳69，夷貊下，東夷高句麗傳)

45) “肅愼氏獻楛矢石弩，高麗國譯而至。”(『宋書』卷29，志第19，校勘記)

46) 장웨이공(姜維公), 2004, 앞의 논문, 16쪽.

47) “七年，詔曰：‘使持節·散騎常侍·督平營二州諸軍事·征東大將軍·高句麗王·樂浪公璉，世事忠義，作藩海外，誠系本朝，志剪殘險，通譯沙表，克宜王猷。宜加褒進，以旌純節。可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持節·常侍·都督·王·公如故。’太宗泰始，後廢帝元徽中，貢獻不絕。”(『宋書』卷97，列傳57，夷蠻，高句麗傳)

하여 이때 유송과 백제의 관계가 유송의 고구려와의 관계보다 밀접하지 못하였다는 알 수 있다. 사실 이때 백제는 내외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백제 전지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내부에 분쟁이 생겼는데 즉위하는 과정에서 귀족 중심세력이 眞氏에서 解氏로 바뀌면서 내정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이다.<sup>48)</sup> 毗有王 29년(455) 가을, 백제에 또 이상한 일기 징후가 포착되었는데 9월에 한강에 黑龍이 보였고 하늘이 바로 흐리지면서 흑룡은 날아갔고 왕이 죽었다는 것이다.<sup>49)</sup> 이것은 비유왕이 죽을 때 백제에 아마 이상한 정치상황이 발생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리고 蓋鹵王이 즉위하기 전 14년 동안의 상황들에 관한 기록이 매우 적어 비유왕이 죽고 개로왕이 즉위한 초기, 이 사이의 백제국내 정치 환경이 아마 비교적 복잡하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국내환경 뿐만 아니라 백제의 외부환경도 비교적 복잡하였다. 이 시기에 왜가 비록 백제와의 군사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왜는 원가 15년(438)과 원가 28년(451年) 두 번이나 유송에게 자신들에게 “都督百濟諸軍事”로 책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거절당했다.<sup>50)</sup> 왜의 이런 요구를 백제는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이 외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백제가 고구려와 적대적인 관계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다.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후 한반도 내의 가장 강한 군사력을 보여 백제는 고구려의 강한 압력에 임하면서 할 수 없이 신라와 연합할 수밖에 없었다. 455년부터 고구려와 백제 신라간의 수차례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 정세도 더욱 복잡해졌다.

두 번의 큰 북벌전쟁을 바로 마쳤고, 내부의 왕권 쟁탈을 바로 안정화 시켰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등을 시급하게 회복하려는 유송으

48) 양기석, 1982, 「백제 전지왕대의 정치변혁」, 『湖西史學』10, 27쪽.

49) 『三國史記』卷25, 百濟本紀3, 毗有王29年. “秋九月,黑龍見漢江, 須與雲霧晦冥, 飛去. 王薨.”

50) 리레이(李磊), 2022, 「유송의 “동부 복속”질서와 동아시아의 다변관계(劉宋的“東服”秩序與東亞的多邊關係)」,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146쪽.

로서는 한반도 내부의 복잡한 형국에 관여할 여력이 없었다. 436년부터 지속적으로 개선된 유송과 고구려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또 고구려의 북제와 관계 개선도모를 막기 위해 유송은 대명 원년에 일단 백제왕에게 “백제왕” 왕호를 내리지 않기로 하고 그 전에 이미 제수한 적이 있는 백제의 장군호인 “진동대장군”만 제수하였다. 그리고 대명 7년(463) 고구려왕을 “거기대장군”으로 승격한 외에 “낙랑군공(樂浪郡公)”과 “고구려왕” 작호를 제수하였다. 유송의 이런 조치는 한반도 정세, 유송과 북위의 관계, 유송 내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내린 결정이었고 백제와 고구려의 지위를 구분함으로써 고구려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려는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적해야 할 것은 비록 대명 원년(457) 유송이 “백제왕” 왕호를 백제에게 제수하지 않았지만 백제는 이때 내부와 외부의 환경이 비교적 열악하여 유송의 지지가 절실하였고, 그리고 정치와 군사적인 면에서의 요구 외에 문화적인 요구도 있어 유송의 이런 차별적인 행동은 백제와의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후 대명 (458), 대명 7년(463), 태시 7년(471)과 元徽 4년(476), 백제는 여전히 사신을 유송에 보냈다.

#### IV. 陳文帝 天嘉 3년 “百濟王” 왕호 제수문제

陳은 557년에 건립되었으나 559년 진문제가 정식으로 즉위할 때까지 그의 지시는 건강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만 유효하였다. 그리고 湘州와 郢州를 차지한 王琳이 양 원제의 어린 손자 蕭莊을 왕으로 세우는 한편 북제북주와 결탁하면서 진의 최대 위협으로 되었다. 천가 원년(560) 진 문제가 왕림과 북제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강주(江州), 영주를 빼앗고 다시 巴丘에 진군하여 봉쇄정책을 이용하여 북주를 격파한 후에야 진나라는 안정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였다.<sup>51)</sup> 이런

51) 왕쑹뤄(王仲榮), 2016, 『魏晉南北朝史』, 上海人民出版社, 431쪽.

이유로 진은 유송, 남제와 소량시기의 즉위 초기에 바로 백제와 교류하고 백제왕을 진수하는 전통을 지키지 못했다. 천가 3년(562)이 되어 서야 진나라는 비로소 백제와의 교류를 시작하였고 백제왕에게 “무동대장군”의 장군호를 제수하였고 고구려왕에게도 “영동장군(寧東將軍)”의 장군호를 제수하였으나 모두 왕호를 제수하지 않았다. 진나라가 건립되고 멸망할 때 까지 진나라는 백제왕과 고구려왕에게 단 한번만 제수하여 그 전의 유송, 남제와 소량과 비교해 볼 때 횡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나라의 내부 정세의 불안정, 그리고 경제를 빨리 부양해야하는 현실상황의 수요로 진나라로 하여금 백제와 고구려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시기 한반도의 정세도 비교적 복잡하였다. 진흥왕 14년(553) 신라가 백제 동북방의 땅을 차지하여<sup>52)</sup> 관계가 악화되었고 비록 3개월 후 신라가 백제왕의 딸을 왕비로 맞이하였으나<sup>53)</sup> 두 나라관계에는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진흥왕 15년 (554), 백제는 군사를 보내 신라를 습격하였고 성왕이 살해당하였다.<sup>54)</sup> 관산성에서의 교전은 백제와 신라관계가 완전히 악화되었다는 징표이고 이후 두 나라는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sup>55)</sup> 이와 더불어 남조의 실력이 약화되어 백제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국교가 단절한 지 95년 만인 567년에 다시 북조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며 교류하기 시작하였고<sup>56)</sup> 572년에도 사절을 보냈으며 577년, 578년에는 북주에

52) 眞興王14年, “秋七月, 取百濟東北鄙, 置新興, 以阿滄武力爲軍主.”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53) 眞興王14年. “冬十月, 娶百濟王女爲小妃.”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第4)

54) “秋七月, 修築明活城. 百濟王明禮與加良來攻管山城, 軍主角干于德, 伊滄耽知等逆戰失利. 新州軍主金武力, 以州兵赴之, 及交戰, 裨將三年山郡高於都刀, 急擊殺百濟王. 於是, 諸軍乘勝大克之, 斬佐平四人, 士卒二萬九千六百人, 匹馬無反者.”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4, 眞興王 15年)

55) 김금자(金錦子), 2011, 120쪽.

56) 天統三年, “冬十月, 突厥·大莫婁·室韋·百濟·靺鞨等國, 各遣使朝貢.” (『北史』 卷8, 齊本紀下8)

사신을 보냈다.

진나라가 정권의 안정에 인간힘을 쏟아 백제와의 관계에 주목할 수 없을 때 백제도 국내의 환경의 변화 때문에 북조정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했으므로 진과의 관계 건립에 충분한 주의를 두지 않았다. 이 점은 562년 진나라의 제수 대상이 성왕 “餘明”이라는 점에서도 보인다. 562년은 백제 성왕 여명이 사망한지 8년이나 된 해였지만 진나라의 책봉 대상이 여전히 여명이었다는 것은 진나라가 아직 성왕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이는 백제가 그 전에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진나라가 백제에게 제수한 장군 호가 “무동대장군”이었다는 것을 통해 비록 두 나라의 교류시기가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진이 구축한 대외 질서에서는 여전히 백제를 동아시아에서의 가장 중요한 나라로 보고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V. 맺음말

백제와 남조의 왕래가 빈번하여 『송서』의 기록에 따르면 원가 2년(425) 이후 백제는 매년 사절을 보내 방물을 조공하였다고 한다.<sup>57)</sup> 사료에 명확하게 기록된 남조와 백제의 사절왕래 그리고 책봉은 모두 31회에 달한다. 이 중, 유송 때에는 횡수가 가장 많아 13번에 달하고 남제 때에는 6번, 소량 때에는 7번, 진 때에는 5번에 달한다. 이런 교류에서 관작의 제수는 중요한 내용이었고 봉작제도 또한 중국 고대사 회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제도이다.

남조의 유송, 남제, 소량 그리고 진은 선후로 해서 총 9회에 걸쳐 백제왕에게 왕호와 장군호를 제수하였다. 건원 2년(480)의 기록이 분명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유송 효무제 대명(大明)

57) “其後每歲遣使奉表，獻方物。”(『宋書』卷97，列傳57，夷蠻，百濟傳)

원년과 陳 문제 천가 3년에만 장군호만 제수하고 “백제왕” 왕호를 제수하지 않았다. 457년은 유송이 고구려와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하여 백제왕에게 “백제왕” 왕호를 제수하지 않았고 562년은 진이 국내정세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이었으므로 제수할 여력이 미비하여 “백제왕” 왕호를 제수하지 않았다. 왕호제수와 변천에 대한 연구를 통해 “백제왕” 왕호 제수여부가 남조와 백제의 관계, 두 나라 내부의 정치 상황, 대외관계를 말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조 천하질서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남조는 백제를 매우 중요시하여 백제 왕에게 왕호를 제수하였고 남조가 외부와 내부의 군사적 정치적 압력을 받았을 때에는 백제와의 관계를 축소시켰는데 “백제왕” 왕호의 제수가 바로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백제 또한 자신의 국내외 상황에 근거하여 남조와의 관계를 설정하였다.

“백제왕”의 왕호 제수에 비해 남조가 백제왕에게 제수한 장군호는 점차 승격되어 유송과 남제 때는 모두 “진동대장군”이었고 소량 때는 “정동대장군”, “영동대장군”, “수동대장군”이었으며 진나라 때에는 무동대장군”으로 동아시아 여러 나라 중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런 분명한 지역특징이 있는 장군호는 남조의 백제에 대한 군사적인 욕구가 내포되어 있다.

남조의 “백제왕” 왕호 제수는 백제의 국가안정에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조 여러 정권에서의 천하질서 구축, 대외관계에서의 형평성 유지에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투고일: 2023.11.27, 심사개시일: 2023.11.30, 게재확정일: 2023.12.12.]

【참고문헌】

- 김수태, 2011,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외 관계와 남조」, 『백제학보』 6
- 노중국, 2012, 『백제의 대외 교섭과 교류』, 지식산업사
- 박광식, 2015, 「백제 웅진초기의 정국과 동성왕의 즉위」, 『韓國史學報』 61
- 박기범, 2022, 「4세기 백제의 영역국가 전환과 왕권 중심 정치체제의 성립」, 『중원문화연구』 30
- 박윤선, 2006, 「5세기 중반~7세기 백제의 대외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찬우, 2022, 「백제의 외교문서와 남북조 외교」,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영식, 2005, 『백제의 대외관계』, 주류성
- 이기동, 1974, 「중국사서에 보이는 백제왕 牟婁에 대하여」, 『역사학보』 62
- 이도학, 1984,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 王系の 檢討」, 『한국사연구』 45
- 임기환, 2003, 「南北朝期 韓中 冊封·朝貢 관계의 성격——고구려·백제의 冊封·朝貢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32
- 양기석, 1982, 「백제 전지왕대의 정치변혁」, 『湖西史學』 10
- 양기석, 1984, 「五世紀 百濟의 ‘王’·‘侯’·‘太守’制에 대하여」, 『사학연구』 38
- 정재운, 2000, 「東城王의 卽位와 政局 運營」, 『한국고대사연구』 20
- 정재운, 2009, 「5~6세기 백제의 南朝 중심 외교정책과 그 의미」, 『백제문화』 4
- 金錦子, 2011, 『五至七世紀中葉朝鮮半島三國紛爭與東北亞政局』, 홍콩, 亞洲 출판사
- 李磊, 2022, 「六世紀前期東亞的地緣格局與政治聯動」, 『社會科學』 4
- 李磊, 2022, 「劉宋의 ‘東服’秩序與東亞의 多邊關係」,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4

- 李爽, 2018, 「長壽王時期高句麗與北魏的關係」, 『社會科學戰線』 6
- 楊軍 王秋斌, 2006, 『中國與朝鮮半島關係史論』,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 楊光輝, 1999, 『漢唐封爵制度』, 北京, 學苑出版社
- 楊恩玉, 2018, 魏晉南朝的官階探討, 『江西社會科學』
- 楊璐 全瑩, 2021, 「漢唐時期樂浪公·樂浪王爵號的除授與變遷」, 『연변대학학보』 (사회과학판) 2
- 王仲榮, 2016, 『魏晉南北朝史』, 상해인민출판사
- 張舜輝 편저, 1984, 『中國史學名著題解』, 北京, 中國青年출판사
- 張旭華, 1995, 「蕭梁官品官班制度考略」, 『中國史研究』 2
- 姜維公, 2004, 「南朝與北朝對高句麗政策的比較研究」, 『中國邊疆史地研究』 4
- 周文俊, 2018, 「南朝官職除拜考述 - 以制度程式與過程爲中心」,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2
- 陳仲安 王素, 2018, 『漢唐職官制度研究』, 中華書局
- 韓國磐, 1983, 『魏晉南北朝史綱』, 北京, 人民出版社
- 韓國磐, 1994, 「南北朝隋唐與百濟新羅的往來」, 『歷史研究』 2
- 韓昇, 1995, 「“魏伐百濟” 與南北朝時期東亞國際關係」, 『歷史研究』 3
- 坂元義種, 1968, 「五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朝鮮史研究会論文集』
- 井上直樹 著, 임동민譯, 2018, 「백제의 왕호·후호·태수호와 장군호 — 5세기 후반 백제의 지배질서와 동아시아」, 『백제학보』 25

**【Abstract】**

**Research on the Removal of the Grand Title  
of “King of Baekje” during the Southern  
Dynasty during the Southern Dynasty**

Zhang, Yaoyuan  
(Yanbian University)

Since the title of “King of Baekje” was awarded to the King of Baekje Yuying for the first time by the Central Plains Dynasty in the 12th year of Emperor Yixi reign of Emperor An of the Eastern Jin Dynasty) (416 AD), the title of “King of Baekje” has always accompanied the history of the de-awarding of official titles of Baekje in the Southern Dynasty as well as in the Sui and Tang dynasties. In the Southern Dynasties, there were strict procedures for the removal and grant of the official title. According to historical records, the Southern Dynasty had successively enthroned the king of Baekje nine times, but the title of “King of Baekje” was enthroned only six times, and the reasons for the enthroning were not clear. This article explores the system of enfeoffment during the Southern Dynasty, examines the standardization of the aforementioned system, discusses the position and changes of Baekje in the external relations of the Southern Dynasty, and focuses on exploring the fact that Liu Song chose not to temporarily remove the title of “Baekje King” due to his

greater emphasis on the relationship with Goguryeo in the first year of the Daming reign of Emperor Xiaowu (457 AD), And in the third year of the Tianjia(天嘉) reign of Emperor Chen Wen (562 AD), the Chen Dynasty did not remove the title of “Baekje King” due to urgent internal restructuring.

Keywords : Southern Dynasty, Baekje, “King of Baekje”